



【 교과서 p.74~75 】

1. 신분제의 정비

(1) 조선 시대의 신분제

- ① 신분구조 - 양천제 : 법적 신분제 - (양인, 천인)
- 그러나 실제로는 4신분제 - (양반, 중인, 상민, 천민)

양반	문, 무관(관료계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유교 경전 공부를 통해 학문과 인격 수양</li> <li>▪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어 정책 주도</li> <li>▪ 여론 제시</li> </ul>
중인	기술관, 서얼, 서리, 향리	행정 업무 보조 및 실무 행정 담당
상민	농민, 수공업자, 상인	조세, 군역, 공물 납부
천민	공 · 사노비, 백정, 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매매, 증여, 상속의 대상</li> <li>▪ 주인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분류</li> </ul>

2. 향촌 지배 체제의 형성

- ① 유향소 : 향촌 자치 기구
- ② 향약 : 향촌 규약, 사회 풍속 교화, 질서유지, 치안 담당 등

【 교과서 p.76~81 】

1. 조선 후기의 농업(★)

(1) 농업 생산력의 향상

- ① 임지왜란, 병자호란 이후 경작지 황폐화, 생산력 감소
- ② 그래서 농민들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농기구와 시비법(비료주는 방법) 개량, 모내기법 도입
- ③ 모내기법의 확산 : 벼와 보리의 이모작 가능 → **광작** 가능

(2) 상업적 농업의 발달

- ① 소작료 납부 방식 변화 : 타조법 → **도조법**
- ② 재배 작물의 변화 : **상품 작물**(쌀, 목화, 채소, 담배, 인삼 등), 구황 작물(감자, 고구마 등)

2. 조세 제도의 개혁(★★★★)

- (1) 전세 (곡식으로 납부) : **영정법** → 풍흉에 관계없이 **1결당 4~6두** 징수
- (2) 공납 (특산물로 납부) : **대동법** → 1결당 12두 징수, (특산물 대신) **쌀·배·돈**으로 납부 가능, **공인** 등장
- (3) 군역 (노동력으로 납부) : **균역법** → 장정 1명당 군포 **2필** → **매년 1필로 감축**, 재정 보충을 위해 양인 수 확대



3. 민영 수공업의 발달과 광산 개발(★★)

- (1) 민영 수공업 발달 : 선대제, 독립 수공업자의 등장
- (2) 민영 광산 증가 : 덕대가 광산 경영, 잡채 성행

4. 상업과 대외 무역의 발달

(1) 도고와 사상(★★)

- ① 공인과 도고의 성장 : 대동법 실시와 신해통공의 영향
  - \* 공인 : 관청과 결탁한 특권상인
  - \* 도고 : 독점적 도매상인

(2) 장시의 발달

- ① 보부상들이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

(3) 화폐의 사용 (★★)

- ① 상평통보
- ② 전황 (화폐부족현상)

【 교과서 p.81~82 】

1. 신분 질서의 동요 - 조선 후기의 현상!! (★★★)

양반	① 조선 후기 양반층의 분화 (권반 / 향반/ 잔반) ② 조선 후기 신분제의 특징 - 양반 수의 증가, 상민과 천민의 수는 감소
중인	납속(곡식을 납부), 공명첩 등을 통해 신분 상승
상민	① 농민층 분화 : 부농(부자 농민) / 빈농(가난한 농민) ② 농민의 신분상승 : 납속(곡식을 납부), 족보 위조, 공명첩 등을 통해
천민	노비들도 신분상승

2. 향전 발생 - 기존 양반층(구향) vs 신흥 양반층(신향)